

「키르케」: 다시 쓰는 『율리시스』, 미리 쓰는 『경야』*

김 경 속

“다가오는 사건은 그 이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Coming events cast their shadows before*, U 8.526)

I. 들어가며

후기식민작가로 잘 알려진 러쉬디(Salman Rushdie)는 1982년 7월 3일자 『런던 타임즈』(*London Times*)에 “이전의 식민지가 영국에 대해 복수의 되받아 쓰기를 한다 (*The Empire Writes Back with a Vengeance*)”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실제로 많은 후기식민작가들이 영문학 정전에 대한 되받아 쓰기를 해왔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남아공의 아프리카너 작가 쿛시(J. M. Coetzee)는 디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를 『포』(*Foe*)로 다시 썼고,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크레올 작가인 리스(Jean Rhys)는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에 대한 되받아 쓰기로 『광활한 사르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나이지리아 작가 아체베(Chinua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0979). 2015년 연구년 기간 중 연구되었음.

Achebe)는 콘래드(Joseph Conrad)의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을 『산산이 부서지다』(*Things Fall Apart*)로 다시 쓴 바 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영문학 정전들이 식민지 작가들에 의해 다시 쓰여졌고, “되받아 쓰기 혹은 “다시 쓰기”라 하면 식민 지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약자의 입장 즉 피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다시 기술하는 것을 뜻하며, 식민지배자에 의해 가려지고 식민 지배 내러티브 가운데 매몰된 채 자신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간과되어왔던 피식민 주체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항적 다시 쓰기는 “원본 앞에서 자기 반성적이며 동시에 원본에 종속되지 않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일종의 번역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조규형 163), 그렇기에 식민문화의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전복적 담론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식민지를 경험한 피식민 작가가 영문학 정전을 되받아 쓴 작품에 대한 원전과의 비교분석은 탈식민 비평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 작가의 작품 속에 나타난 다시 쓰기 혹은 되받아 쓰기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특히 그 작가가 영문학 정전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을 해왔지만 비교적 최근부터 후기식민 관점에서 활발하게 “다시 읽히고 있는 경우라면 말이다. 조이스(James Joyce)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1990년대까지 조이스는 줄곧 모더니스트-간혹 경우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스트-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아일랜드의 식민 역사가 재조명되고 탈식민주의 이론이 학계에서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그의 작품 역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이스의 경우 특정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타 작품에도 등장하며 전 작품이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이기에 그의 전 작품이 서로에 대한 다시 쓰기로 읽힐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예를 들어 비평가 쿠마(Udaya Kumar)는 자신의 저서 『조이스의 미로: 『율리시스』의 반복, 시간, 그리고 전통』(*The Joycean Labyrinth: Repetition, Time, and Tradition in Ulysses*)을 통해 조이스 문학에 나타난 “반복의 문제에 천착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이스의 경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전작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장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비틀기와 패러디를 시도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스티븐(Stephen Dedalus)과 블룸(Leopold Bloom)의 -어쩌면 텍스트 자체의- 의식 혹은 무의식이 환상적 드

라마 형식으로 그려진 『율리시스』(*Ulysses*)의 열다섯 번째 장인 「키르케」(*Circe*) 장의 경우 『율리시스』 앞선 에피소드들에 대한 다시 쓰기로 보기에 적합하다. 동시에 「키르케」장은 환상과 무의식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¹⁾에 대한 미리 쓰기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키르케」장을 『율리시스』와 『경야』 두 작품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텍스트(*in-between text, work in progress*)로 다시 읽는 것은 “다시 쓰기 로서의 『율리시스』 전반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조이스의 마지막 작품이자 다시 쓰기의 결정체인 『경야』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동시에 조이스가 자신의 작품들을 통하여 아일랜드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분석하여, 그의 작품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역사의 비전을 한층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요컨대 본 논문은 「키르케」장이 『율리시스』의 앞선 장들을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또한 『경야』를 어떻게 미리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나치게 이론에 경도된 최근의 비평경향과 달리 본 논문은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관계에 좀더 집중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텍스트 간의 인유(*allusion*) 혹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찾아 텍스트 자체에만 매몰되는 우를 범한 신비평적 해석과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다시 쓰기를 통하여 조이스의 문학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조이스가 자신의 텍스트를 통하여 아일랜드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안의 역사쓰기를 통하여 조이스 문학이 지향하는 바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조이스와 다시 쓰기

1990년대 이후 조이스 문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비평-신비평, 전기비평, 신화비평 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²⁾ 비평가들은 단순히 모더니스트로서 조이스와 모더니즘의 발현으로서

1) 이후 『경야』로 약칭함.

2) 뎡가니엘로(Dominic Manganiello)의 『조이스의 정치성』(*Joyce's Politics*)을 시작으로, 페어홀(James Fairhall)의 『조이스와 역사의 문제』(*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놀란

그의 작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800년에 이르는 식민 역사를 간직한 아일랜드라는 맥락 속에 그를 위치시키고, 아일랜드의 식민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들은 텍스트로서 그의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는 신비평적 해석, 조이스의 전기적 사실과 작중인물—특히 스티븐의 경우—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에 집착하는 해석, 혹은 에로스적 욕망—특히 블룸의 경우—에 치중하는 정신분석학적 해석 등 기존 비평의 한계를 넘어서서, 피식민지로서의 아일랜드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입체적인 차원에서 조이스를 바라봄으로써 현실에 입각한 풍요로운 해석을 양산해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그러나 탈식민 작가로서 조이스가 갖는 전복적인 측면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시 쓰기”를 통한 비평은 안타깝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비평가 커쉬너(R. Brandon Kershner)는 자신의 저서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문화』(*The Culture of Joyce's Ulysses*)에서 “조이스는 인유(allusion)를 많이 사용하는 작가로 악명 높다 (10)고 언급하며 조이스 작품 속에 사용된 인유를 분석한 바 있다.³⁾ 그러나 그의 분석은 조이스 작품에 나타난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성경(*The Holy Bible*), 단테(Alighieri Dante), 브루노(Giordano Bruno), 비코(Giambattista Vico) 등 고전에 대한 인유에 국한될 뿐이다. 초기 비평서들은 『율리시스』와 호머(Homeros)의 『오디세이』(*Odyssey*) 사이에 존재하는 평행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일례로, 초기 비평서인 길버트(Stuart Gilbert)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James Joyce's Ulysses*)의 경우 호머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이름과 줄거리 위주로 『율리시스』를 분석함으로써 『율리

(Emer Nolan)의 『제임스 조이스와 민족주의』(*James Joyce and Nationalism*), 쉹(Vincent Cheng)의 『조이스, 인종, 그리고 제국』(*Joyce, Race, and Empire*), 더퍼(Enda Duffy)의 『서벌턴 『율리시스』』(*Subaltern Ulysses*), 그리고 애트리지(Derek Attridge)와 호우즈(Marjorie Howes)의 편저 『세미콜로니얼 조이스』(*Semicolonial Joyce*) 등 다수의 저서가 출간되었다. 특히 아일랜드 출신의 비평이론가인 로이드(David Lloyd)와 카이버드(Declan Kiberd) 등의 연구는 조이스의 작품을 아일랜드가 겪은 식민 역사의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 3) 보히만(Van Boheeman)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조이스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언급한다: “모든 글쓰기는 이전의 구조, 의미, 혹은 텍스트에 근거를 둔다. . . . 조이스의 글쓰기 전략은 모든 글쓰기가 갖는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전형이 된다 (Rickard 재인용 179).

시』를 해석함에 있어 『오디세이』가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전제를 제공해 주었으며, 실제로 이후 많은 비평가들이 길버트의 영향을 받아 『율리시스』와 『오디세이』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 찾기에 천착해 왔다. 물론 엘리엇(T. S. Eliot)의 유명한 논문 「『율리시스』, 질서, 그리고 신화」(*Ulysses, Order, and Myth*) 역시 호머 신화와 『율리시스』를 동일시하는 데 한몫했음에 분명하다. 조이스와 호머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쟈(Fritz Senn) 역시 “초모더니스트(ultra-modernist) 조이스가 항상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호머, 오비드(Ovid) 등 고전 작가들에게로 회귀한다 (“Remodeling” 71)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쟈는 조이스가 단순히 고전 작가들의 혼령을 그대로 불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지점에서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⁴⁾ 이런 측면에서 쟈의 비평에 대한 부커(Keith Booker)의 해석은 매우 적절하다: “쟈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이스는 『오디세이』를 『율리시스』를 위한 구조적 모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조이스는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동질적인 호머의 서사시의 문체와 언어를, 이와는 근본적으로 정반대를 이루는 자신의 이질적 텍스트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일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비평들이 『오디세이』에 굳건히 닦을 내린 채 두 작품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들을 찾는 차원에서 조이스의 “다시 쓰기”를 분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김슨(Andrew Gibson)이 편저한 『조이스의 「키르케」 읽기』(*Reading Joyce's “Circe”*) 서문에서 김슨은 「키르케」에 대한 그간의 비평을 정리하며 사실적인 분석과 정신분석적 분석이 공존해 왔음을 지적한다.⁵⁾ 이 편저에는 「키르케」장과 아

4) 물론 조이스 스스로도 자신이 다른 작가들에게서 막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내가 만일 내 영혼의 우물-성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에 두레박을 내린다면, 나는 내 자신의 물과 더불어 그리피스(Griffith)와 입젠(Ibsen)과 스케핑튼(Skeffington)과 버나드 본(Bernard Vaughn)과 성 알로이시우스(St. Aloysius)와 르낭(Renan)의 물을 길어올리게 된다. 그리고 나는 내 소설 속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위에 언급한 이들의 그늘과 본질 앞에 두레박을 내려 그들이 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볼 것이다. 만일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어쩔 도리가 없다 (*Letters II* 191).

5) 이미 1947년도에 케인(Richard Kain)은 「키르케」장이 프로이드 식의 심리학을 가장 훌륭하게 극화한 텍스트임을 선언하였다(Gibson 5). 그러나 골드만(Arnold Goldman)은 자신의 저서 『조이스 패러독스』(*The Joyce Paradox*)에서 「키르케」가 “자신의 소설에 대한 조이스 자신의 환상 (Joyce's fantasia on his own novel)으로 읽힐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96-99), 케너(Hugh Kenner)는 「키르케」장이 블룸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

일랜드 문예 부흥운동 전통을 비교한 플랫(L. H. Platt)의 논문과 「키르케」장을 『율리시스』 전체에 대한 볼록렌즈로 분석한 쟈(Fritz Senn)의 논문, 「키르케」장에 나타난 복화술을 분석한 코너(Steven Connor)의 논문, 그리고 「키르케」장의 배경을 이루는 밤거리(nighttown)를 배회하는 영국군인(redcoat)들에 초점을 맞춰 영국에 의한 아일랜드의 식민 상황을 분석한 김슨 자신의 논문 등 「키르케」장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포함되어, 「키르케」장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비평적 관점을 제시해 준다. 이 가운데 쟈의 연구 “선행의 정렬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키르케」 (“‘Circe’ as Harking Back in Provective Arrangement)가 특히 유용한데, 그는 「키르케」장이 앞선 사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기억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에피소드를 재해석하였다.

기억을 키워드 삼아 『율리시스』를 분석한 비평가 리카드(John S. Rickard)의 연구서인 『조이스의 기억의 책: 『율리시스』의 기억술』(*Joyce's Book of Memory: The Mnemotechnic of Ulysses*) 역시 본 연구에 매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는 단순히 인물들의 기억만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의 기억이 「키르케」장에서 서로 뒤섞이며 난장을 벌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스티븐과 블룸은 기억을 촉발시키는 계기—사물이나 말 혹은 사건의 우연한 발생—를 텍스트 속에서 반복적으로 조우하며, 「키르케」장의 중요한 지점에서 조이스는 여러 번 텍스트를 거슬러 올라가 집필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기억의 촉발 계기를 더 많이 덧붙였다 (Rickard 128-9). 따라서 그는 「키르케」장을 『율리시스』 텍스트 전체의 기억을 변형시키는 여자마법사로 간주한다: “「키르케」장은 기억의 마법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을 변신시키는 『율리시스』의 여자 마법사로서, 이들을 가장 저열하고 동물적인 정신 상태로 전락시켜 이들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묻어놓은 것들을 마주하고 극복하도록 한다 (Rickard 137). 동시에 리카드는 『율리시스』의 앞선 장면뿐만 아니라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장면 또한 「키르케」에서 다시 쓰여진다고 언급한다.⁶⁾

하며 이러한 환상들이 블룸의 욕망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6) 예를 들어, 어린 스티븐이 돌런 신부(Father Dolan)에게 억울하게 체벌을 당하는 장면(U 15.3670-72)이 되풀이되기도 하고 파넬(Charles Parnell)에게 실망한 단테(Dante Riordan)의 모습(U 15.1714-15)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리카드는 이를 “텍스트상의 기억술이라 칭하며, “이전 텍스트의 장면이 「키르케」에서 다시 반복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로서 자아낸다고 평한다(Rickard 164).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리카드가 『율리시스』 이외에 다른 텍스트 역시 「키르케」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매우 날카롭다. 그러나 기억 자체가 변화가능하고 다시 회상되었을 때 과거 그 자체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듯, 이전 텍스트의 장면들 역시 앞서의 장면들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고 변화된 형태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없음이 아쉽다. 또한 「키르케」장에서 분명 왜곡된 채 등장하는 앞선 텍스트의 기억들이 아일랜드의 어떠한 정치적/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암시하고, 조이스의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또한 결여되어 있음이 아쉽다.

노리스(Margot Norris)는 최근 저서 『첫경험자와 베테랑의 『율리시스』 읽기』(*Virgin and Veteran Readings of Ulysses*) 중 「키르케」에 관한 장에서 버사 서플(Bertha Supple)이 13장에서 거티(Gerty MacDowell)의 회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 텍스트 상에 실제 등장하는 인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르케」장에 등장하고 있음(U 15.88-89)을 언급하며, 「키르케」장이 일종의 “대안적인 세상 (alternative possible worlds)을 구성하고 있음을 언급한다(160). 그러나 노리스 역시 이러한 서술방식이 『율리시스』 전체를 통하여 조이스가 만들어가는 대안적인 역사/정치 서사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공하지 않는다.

「키르케」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키르케」장이 『율리시스』의 앞선 에피소드의 내용들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유용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만, 『율리시스』의 이전 장들에 대한 다시 쓰기로서 「키르케」장이 내포하는 탈식민적 함의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에 언급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키르케」장이 제시하는 대안적 서사가 갖는 탈식민적 함의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결국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하는 본 논문은 단순히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을 초월하여, 어떻게 대안적인 버전으로 문학이 현실을 다시 쓰는지, 특히 기존 텍스트를 어떻게 다시 쓰며, 이로 인하여 텍스트 간에 어떤 대화가 존재하고, 문학 텍스트가 현실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I. 「키르케」: 다시 쓰는 『율리시스』

초기 비평서에서 일찍이 케너(Hugh Kenner)는 “『율리시스』가 『오디세이』의 재배치이자 재배열이듯, 「키르케」는 『율리시스』의 재배치이자 재배열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356). 이렇듯 “다시 쓰기 는 『율리시스』와 「키르케」를 다시 읽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케너의 언급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율리시스』는 호머의 『오디세이』에 대한 다시 쓰기이다. 그러나 조이스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지고 신화로 고착된 이 고전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여러 겹의 낱실로 삼아 『오디세이』라는 씨실에 교묘히 엮어냈다. 그리고 이 씨실과 낱실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서 서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아일랜드의 역사와 정치 상황을 대안적 형태로 교묘히 변형하여 기록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율리시스』가 『오디세이』를 뼈대로 사용하였지만, 이는 “다시 쓰기 를 위한 전략적 채택일 뿐이다. 원작에서 정절을 지키며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페넬로페(Penelope)와 자신의 침실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 대담하게 정사를 벌이는 몰리(Molly Bloom), 그리고 구혼자들을 용감하게 물리치는 오디세이와 아내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오쟁이진 남편 블룸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아일랜드 민족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영웅인 에멧(Robert Emmet)의 마지막 유언—“아무도 내 묘비명을 쓰게 하지 않으리. . . . 나의 조국이 지구상의 국가들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날, 그 날이 오기 전에는 나의 묘비명이 쓰여지지 않게 하라. 나는 했노라 —은 블룸의 방귀로 그 진지함과 신성함이 희화된다. 대안적 관점에서 다시 쓰여지고 패러디되는 아일랜드의 역사적 상황들은 『오디세이』와는 전혀 다른 『율리시스』라는 텍스트로 재구성된다. 이렇듯 『율리시스』 전체가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엽의 아일랜드의 정치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다시 쓰기로 읽힐 수 있지만, 특히 「키르케」장은 블룸의 꿈, 『율리시스』 전체 텍스트의 꿈 혹은 무의식을 이루며 『율리시스』 앞 선 장들을 다시 쓴다.

젠은 자신의 논문 “선행의 정렬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키르케」 (“‘Circe’ as Harking Back in Provective Arrangement)에서, 「키르케」장이 앞선 사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기억한다고 분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앞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던 블룸이 「키르케」장에 와서 여덟 명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상받는

다는 것을 들 수 있다(U 15.1821-32). 또한 1장에 등장한 단어 “크리소스토모스 (Chrysostromos, U 1.26)는 15장에서 블룸이 낳은 여덟 명의 아들들 중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반복되기도 하고(U 15.1827), 5장에 등장한 코니 켈러허(Corny Kelleher)의 “투라룸 (tooraloom, U 5.15-6) 역시 「키르케」장 끝 무렵에서 다시 메아리친다(U 15.4827-8). 이런 점에서 쟈는 「키르케」장이 조이스의 선행 텍스트에 대한 비틀어진 확대임을 밝힌다(Senn 66-7).⁷⁾ 사실 쟈의 연구는 비평가 그로든(Michael Groden)이 자신의 저서 『미완성 『율리시스』』(Ulysses in Progress)에서 소개한 해석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든은 「키르케」장에서 펼쳐지는 대부분의 환상이 스티븐이나 블룸의 것이지만 「키르케」장이 이전 장의 내용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율리시스』 자체의 의식이 겹으로 뒤집혀 드러나 있음을(inside-out) 지적한다(54). 이러한 맥락에서 그로든은 『율리시스』 자체가 「키르케」장의 등장인물 중 하나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55). 예를 들어, 스티븐이 「방황하는 바위들」(Wandering Rocks)장에서 읽은 책 속에 등장하는 구절인 “nebrakada femininum (U 10.849)이란 똑같은 구절이 「키르케」장에서는 블룸의 환상 속에서 떠올린 물리의 입을 통해 언급되며(U 15.319), 스티븐의 장인 「스킬라와 카립디스」(Scylla and Charybdis)장에서 셰익스피어의 두 번째 좋은 침대로 언급된 벨로(Bello)가 「키르케」에서는 캐릭터로 육화되어 등장한다. 이렇듯 『율리시스』의 앞선 장의 내용들은 「키르케」장 속으로 다시 회귀하되 특정 인물의 의식을 고집하지 않고 마구 뒤섞인다. 조이스가 「키르케」를 집필하면서 동시에 『율리시스』의 앞 장들을 수정했음을 고려할 때, 「키르케」에서 『율리시스』 앞 장의 내용이 뒤섞이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사실인지도 모른다(Hampson 145).⁸⁾

이런 측면에서 비평가 지아렉(Ewa Plonowska Ziarek)은 「키르케」장에 등장하는 모든 어휘들은 과거가 있기에 다시 회귀한 일종의 유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흥

7) 이 부분에서는 “tooraloom 에 대한 조이스의 언어유희가 두드러지므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The car jingles tooraloom round the corner of the tooraloom lane. . . . Corny Kelleher again reassuralooms with his hand. Bloom with his hand assuralooms Corny Kellher that he is reassuraloometay. The tinkling hoofs and jingling harnesses grow fainter with their tooralooloo looloo lay (U 15.4827-916).

8) 실제로 조이스는 “「키르케」장을 쓰는 동안 이전 장들에 다시 손을 대고 수정하기도 하고 내용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Groden 59).

미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키르케」장에 등장하는 모든 어휘들에 과거가 있기에 하나하나가 텍스트를 떠돌다 네트워크를 갖고 회귀한 일종의 유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56). 또한 페러(Daniel Ferrer)는 『올리시스』의 독자들은 15장에 이르러 “익숙한 배경, 등장인물, 상황, 심지어는 어휘에 대해 일종의 데자뷰(déjà vu)를 경험하게 된다고 언급한다(128). 동시에 그는 「키르케」에 등장하는 모든 문장이 『올리시스』 앞선 장에서 “이미 등장했었던 문장들의 결과임을 지적한다(141). 같은 맥락에서 비평가 햄슨(R. G. Hampson)은 조이스가 『올리시스』의 앞선 장으로부터 모든 등장인물들을 「키르케」로 데리고와 장의 환상적인 부분을 부각시킨다고 언급한다(147).

그러나 사실 단순한 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선 장의 내용이나 인물이 「키르케」장에 이르러 비틀리고 뒤집히는 양상 그 자체이다. 예를 들어, 조신한 처녀의 모습으로 「나우시카」장에서 조용히 어린 동생들을 돌보던 시시(Cissy Caffrey)와 에디(Edy Boardman) 그리고 거티(Gerty)는 「키르케」에 이르러 매춘부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여 독자들을 혼동시킨다.

시시 캐프리

나는 그걸 몰리에게 주었네,
몰리는 화끈하니까,
오리 다리,
오리 다리. (U 15.43-47)

...

나는 그걸 넬리에게 주었네,
그녀의 배에 꽂으라고,
오리 다리,
오리 다리. (U 15.66-69)

거티

(블룸에게) 당신이 내 마지막 서랍 속 비밀들을 모두 보아버렸을 때. (그녀는 군침을 흘리며 블룸의 소맷자락을 거칠게 잡아챈다) 천재 유부남! 내게 그렇게 해줘서 난 당신을 사랑해요. (U 15.383-85)

위 인용에서 시시가 부르는 노래 가사 중 “오리 다리는 남성의 성기를 뜻하므로 이 노래는 「키르케」장의 배경인 흥등가에 걸 맞는 성적인 함의가 노골적으로 드

러난 속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시는 스티븐에게 자신은 “1실링짜리 창녀 에 불과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한다(U 15.4383). 또한 13장에서 행해진 블룸의 수음을 모른 척 하던 수줍음 많은 처녀 거티는 「키르케」장에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블룸에게 대쉬하며 숨겨진 성적 욕망을 그대로 펼쳐낸다. 이렇듯 앞 선 장에서 평범한 처녀였던 인물들을 매춘부로 둔갑시키는 것은 비평가 로이드의 “변칙적인 국가 (anomalous state)로서의 아일랜드 문학에 대한 분석—가장 대표적으로는 몰리의 간통(adultery)을 들 수 있다—이 암시하듯, 순수한 문화에 집착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저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⁹⁾

또한 「키르케」장의 다시 쓰기는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아예 대놓고 드러내기도 한다. 14장에서 언급된 “영국의 여덟 가지 참행복 (British Beatitudes, U 14.1453-54)은 15장에서 각각 등장인물로 육화되어 다시 등장하는데 그 비틀림이 흥미롭다.

스티븐

태초에 말씀(word)이 있었고, 세상(world)의 끝에 끝은 없다. 여덟 가지 참행복이여 축복받으라.

(여덟가지 참행복인 디슨, 매든, 크로터스, 코스텔로, 레너헌, 베넌, 멀리건 그리고 린치는 흰 외과 수술복을 입고 네 명씩 나란히 서서 다리를 높이 들고 시끄럽게 행진하며 재빨리 저벅저벅 지나간다

여덟 가지 참행복

(두서없이) 맥주 소고기 전투견 바이불(buybull) 사업 바님 남색질 교황.¹⁰⁾
(U 15.2235-43)

추상적인 개념인 “참행복 이 인물로 육화된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위의 예는 「키르케」장이 앞의 내용들을 단순히 재등장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비틀고 뒤집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 더 자세한 분석을 요한다. “참행복 을 의

9) 「키르케」장은 스티븐의 입을 통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혐오를 폭로하기도 한다: “당신의 조국을 위하여 죽으라. 생각해 봐. . . .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 조국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죽게 하라 (U 15.4471-73).

10) 여덟 가지 참행복이 “beatitudes 이므로 조이스는 b로 시작하는 어휘들로 두운을 맞추어 언어유희를 한다: “beer beef battledog buybull businum barnum buggerum.

미하는 “beatitude 가 b로 시작되는 단어임에 착안하여 조이스는 b로 시작하는 여덟 개의 어휘들을 쏟아내는데, 각각 교묘하게 영국의 제국주의와 이에 대한 조이스의 저항의식을 암시한다. 먼저 맥주는 영국이 아일랜드에서 유일하게 번영시킨 회사인 기네스 맥주를 환기시키는데, 이는 아일랜드인들에 대하여 술에 취한 비이성적인 술주정뱅이의 전형을 강화하여 식민화를 용이하게 만들고 영속화하려 했던 영국의 식민주의적 속셈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또한 “바이불 (buybull)은 그 자체로 “bible 에 대한 말장난(pun)을 이룬다. 동시에 “bull 은 영국을 뜻하는 “john bull 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를 허락했던 교황의 칙서(bull)를 의미하는데, 결국 이를 돈을 주고 샀다는 점에서 종교와 제국주의 사이의 공모관계를 환기시키며 영국 제국주의의 불건전한 기원을 비난한다. 뒤에 이어지는 “사업 이나 “남색질 등의 어휘들 또한 이윤추구에만 매몰된 영국의 제국주의를 공격한다. 이렇듯 조이스는 영국의 제국주의가 감추어온 추악한 양상들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며 이를 영국의 고매한 “참행복 이란 개념과 병치함으로써 그 의미를 증폭시킨다.

한편 김슨은 「키르케」와 『율리시스』 나머지 장들 간의 관계를 “실제성 과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키르케」장을 읽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주장한다. 즉, 김슨에 따르면 「키르케」는 『율리시스』 앞 선 장에서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던 것들을 실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키르케」에서는 『율리시스』의 앞 선 장에서 제외된 가능성이 실재가 된다 (25). 예를 들어, 「키클롭스」(Cyclops)장에서 단순히 이름만 언급 되었던 인물인 도린(Bob Doran)은 「키르케」에 와서 술집의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과장되어 묘사된다. 이런 측면에서 김슨은 「키르케」가 소설이 역사를 다시 쓰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5). 결국 「키르케」는 그간 많은 비평가들이 언급해왔듯 환각의 연쇄물만은 아니다. 『율리시스』의 「키르케」장 이전 장들을 어떻게 다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로렌스(Karen Lawrence)는 그녀의 저서 『『율리시스』에 나타난 문체의 오디세이』에서 「키르케」의 드라마 형식이 갖는 중요성은 모든 것을 실제상황으로 만든다는 점이라며, “커튼이 올라가고, 삭제된 것들이 비로소 받아들여진다 (The omitted is now committed, 153)고 논평한다. 흥미롭게도 이는 역사에 대한 스티븐의 철학적 명상과 일맥상통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브라운(Richard Brown) 역시 「키르케」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방 으로부터

터 발생하여 그 실제성에 대한 카니발적 지식으로 나아가는 텍스트라 칭한다(239). 결국 「키르케」가 『율리시스』의 이전 장을 대안적 형태로 다시 쓰는 것은 한 가지 사실로 고착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안적 형태의 서사를 펼쳐내고자 했던 조이스의 대안적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비평가 쿠마는 「키르케」장을 기본적으로 「텍스트 앞부분에 제시된 요소들이 환상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변화하고 반복되는 정교한 반복의 기계」로 간주한다. 「키르케」에 나타난 반복은, 『율리시스』의 해석적 통일성에 대한 다양성과 불일치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율리시스』의 시간적 구성의 반-통합적 특징」을 확립하고 확실히 한다(86). 이러한 쿠마의 언급은 「키르케」에 나타난 「다시 쓰기」가 갖는 비평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율리시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순환론적 역사관 혹은 역사를 바라보는 다층적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만약 「키르케」장이 없었다면, 『율리시스』를 하나의 주제 혹은 하나의 의미로 통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쉬웠을 터이다. 그러나 「키르케」장에 이르러 뒤틀리고 왜곡되어 다시 등장하는 앞의 내용들은 해석의 통일성을 방해하고 『율리시스』를 다시 읽을 것을 요구한다.

요컨대, 많은 비평가들이 주목해왔듯, 모든 사물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키르케」장은 모든 타자가 주체가 되는 상상의 공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주체와 타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바흐친(Mikhail Bakhtin)적 카니발 공간이 되고, 앞 선 텍스트의 내용들이 한데 뒤섞이고 패러디되어 난장을 벌이는 장이 된다. 「키르케」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들—혹은 『율리시스』 앞 선 장에 등장하였던 모든 인물, 동물 그리고 사물들—은 발언권을 얻는다. 블룸의 주머니 속의 비누도, 그가 먹이를 준 갈매기도, 심지어는 창녀들이 보낸 키스들조차 목소리를 부여받으며, 앞 선 장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상황에 대하여 말대꾸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말대꾸는 앞 선 장에서의 내용을 수정하며 『율리시스』를 다시 읽을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반영주의나 반제국주의가 「키르케」장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않지만, 「키르케」장의 내러티브는 제국주의, 공식적 역사기술(official historiography), 승자들의 시각에서 역사쓰기, 지배담론(master discourse), 타자 혹은 하층민들의 목소리 침묵시키기 등을 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제국주의가 토대로 하고 있는 가치들을 위태롭게 한다.

IV. 「키르케」: 미리 쓰는 『경야』

「키르케」는 『율리시스』를 다시 쓰며 독자들로 하여금 『율리시스』를 다시 읽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텍스트 전체가 꿈의 텍스트라 일컬어지는 『경야』에 대한 일종의 초안(pretext)으로서 『경야』를 읽을 수 있도록 독자들을 준비시키는 측면도 있다. 비평가 켈리(Dermot Kelly)의 주장에 따르면, 「키르케」장은 『율리시스』 그 어떤 장보다도 『경야』를 예견케 하는 에피소드이다.¹¹⁾ 켈리는 「키르케」의 전반적인 문체가 전통적인 문체를 벗어나 대안적이며(58), 낮의 세계에 속하는 이전 장과는 다른 양식의 문체를 선보인다고 주장한다(62). 물론 그렇다고 해서 「키르케」장의 문체가 이전 장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이전 장의 문체를 바탕으로 하여 고의적인 비틀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키르케」장이야말로 『율리시스』의 모든 문체들의 “소용돌이 라 칭한 켈리의 분석은 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64). 이렇듯 「키르케」는 수많은 언어가 뒤섞이며 지형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에게 생명이 부여되고 꿈과 현실의 경계를 본격적으로 넘나드는 텍스트인 『경야』를 읽을 수 있도록 독자들을 미리 훈련시키는 측면이 분명 있다.

비평가 골드만(Arnold Goldman)은 자신의 저서 『조이스 패러독스』(*The Joyce Paradox*)를 통해 「키르케」장 전체가 “조이스 자신의 꿈 혹은 “자신의 소설에 대한 조이스 자신의 환상으로 읽힐 수 있음을 언급한다(96, 98). 열다섯 번째 에피소드에 이르러, 『율리시스』는 비로소 자생력을 얻는다고 그는 논평한다(99). 특히 골드만이 「키르케」장과 『경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키르케」장이 『율리시스』와의 관계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해석의 지점은 『경야』에 대한 비평과 매우 가깝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경야』에서 처럼, 주인공 (여기서는 블룸)은 끊임없이 성희롱으로 고소되어 재판 받고 사형에 처해지지만 메시아와 같은 지위로 격상되고 다시 내쳐졌다가—마치 파넬이 처음

11) “사실 「키르케」장에] 의례 등장하는 무대장치와 물리적 묘사는 신화를 만드는 현란한 기술(mythopoeic pyrotechnics)의 그림자가 너무나 완벽하게 드리워져 「키르케」장을 『경야』와 비교하는 것이 더 쉽다 (Kelly 57). “「키르케」장은 변화무쌍한 함의, 구절의 터무니없는 전환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율리시스』 그 어떤 에피소드보다도 『경야』를 예견케 한다 (68). “블룸의 무의식을 통한 여행은 『경야』의 저자의 출현을 표시한다 (69).

에는 교회(팔리 신부)에 의해 그리고 나서 리오던 부인에 의해 그러하듯-희생된다; 그리고 새로이 여성으로 ‘육화’된다 (99).

소소하게는 키티-케이트(Kitty-Kate)가 『키르케』와 『경야』 두 텍스트 모두에 공통으로 등장하며 두 텍스트 간의 거리를 좁힌다. 또한 “여성의 이성 (U 15.2097)의 힘을 칭송하는 린치(Lynch)의 언급은 『경야』에서 두 아들¹²⁾의 대답을 화해시키는 A. L. P.의 활약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측면에서 보자면, 두 텍스트 모두 언어에 대해 매우 민감한 관심을 내포한다. 『경야』가 획기적인 언어실험으로 쓰여진 텍스트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키르케』장 역시 언어에 대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킨다. 예를 들어, 제스처를 뜻하는 “보편적인 언어 (the universal language, U 15.104-05 & U 15.4726)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블룸은 유포피아를 건국하면서 보편어의 사용을 선포한다: “보편 형제애를 위한 보편 언어인 에스페란토어 (U 15.1691-92). 국제 공용어로 쓰이도록 1887년에 창안된 인공어를 뜻하는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할 것을 선포하는 블룸은 『경야』에서 영어의 권위를 해체하고 수십 개의 언어를 혼용하여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조이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실제로 『키르케』장에는 『경야』식 언어실험의 전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수 등장한다. 지브롤터의 오페라인 ‘캐스틸의 장미 (The Rose of Castile)’는 “The Rows of Castele (U 15.1731)로 변형되어 언급되는데 이는 기본적인 소리는 지키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경야』식 언어실험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날 잊었나요? (U 15.2764)라고 묻는 벨라의 곤란한 질문에 대한 블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네니오 (Nes. Yo, U 15.2766)이다. 이는 이분법적 구도로 구체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이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루 종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에 압도되어 있던 스티븐은 어머니의 유령을 거부하기 위한 몸짓으로 지팡이로 샹들리에를 내리치며 “Nothung (U 15.4242)이라 외치는데 이 또한 대표적인 『경야』식 언어실험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아무것도 아니 라는 의미의 “nothing 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다 는 의미의 “not hung 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지팡이로 치는 행위는 모

12) 『경야』에서 두 아들의 이름은 여러 버전으로 변형되어 기록된다: Mutt & Jute(FW 16-18), Butt & Taff(FW 338.05), Muta & Juva(FW 609.24), 그리고 Mute & Daft(FW 87.24).

세의 계시론적 행위를 모방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지팡이 끝에 산산조각 난 상들리에의 잔해는 1916년 부활절 봉기의 폭력 상황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하나의 기의로 고착되지 않고 수많은 기표 사이에서 진동을 하며 풍요로운 의미를 산포시키는 조이스의 언어유희는 『경야』에서 본격화된다.

이렇듯 「키르케」장에 산재해 있는 말장난은 『경야』에서 본격화되는 언어실험을 예기케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신(God)을 뒤집어 「키르케」장 도처에 개(dog)를 등장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말라키 오펜린 신부

(피가 툭툭 떨어지는 성체를 성배로부터 꺼내 들어올리며) 코르페스 메움(나의 몸).

헤인즈 러브 주교

(미사집전신부의 페티코트 뒤에서 우뚝 솟아, 당근이 꽃힌 회색빛 털복숭이 엉덩이를 드러내 보이)여나의 몸.

저주받은 모든 이들의 목소리

전능하신 개념(Dog)을 위하여 알렐루야.

아도나이

개애애애애!(Dooooooooooooog!)

(U 15.4702-11)

이렇듯 신은 개로 둔갑하여 편재하는 신을 흉내 내며 15장 텍스트 전반을 뒤덮는다. 「키르케」장에서 한 번 언급된 말이 그대로 실재화되어 등장하는 것 역시 언어가 갖는 위대한 힘을 드러내는데, 이는 결국 『경야』 텍스트의 탄생 원리를 이룬다. 결국 이러한 말장난을 통하여 신은 개와 동일시됨과 동시에 종교가 갖는 권위는 희화된다. 종교, 제국주의, 민족주의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커다란 이즘에 대한 반감과 저항은 재론의 여지없이 『율리시스』와 『경야』의 공통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열일곱 살 때 학교 소풍으로 폭포에 갔을 때 혼자 몰래 나무그늘에 숨어 자위행위를 했었던 블룸의 기억은 무의식 깊숙이 잘 숨겨져 있다가 환상의 장인 「키르케」장에 이르러 블룸을 찾아온다.

주목나무들

(중얼거리며) 고등학교 소풍으로 플라포카에 누가 왔었나? 도토리 찾는 반 친구들을 떠나 우리 그늘을 찾아 온 건 누구였을까?

블룸

(겹에 질려) 플라 고등학교? 기억술? 기억력이 완전하진 않지. 뇌진탕. 전차에 치였거든.

메아리

가짜!

(U 15.3307-14)

기억의 왜곡을 타하는 블룸의 주장과 달리 메아리가 외치는 “가짜 를 뜻하는 “sham 은 “수치심 을 뜻하는 “shame 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키르케』장은 블룸의 무의식 밑바닥에 흐르는 죄의식(“나는 죄를 지었어, U 15.3215)과 수치심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다. 또한 옛 가정부인 메리(Mary Driscoll)를 포함하여 블룸이 마음속으로라도 희롱한 적이 있는 여성인물들이 등장하여 블룸을 심문하며 재판을 벌이는 법정 장면은 텍스트 전체가 H. C. E.의 죄의식 속에 깊이 몰들어 있는 『경야』와 매우 깊숙한 관련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키르케』장이 『경야』의 시작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는(144) 햄슨의 주장은 과장으로 일축되어서는 안 된다. 햄슨은 조이스가 『키르케』장을 수정한 것이 결국 『경야』를 집필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키르케』장이 『율리시스』의 앞 선 장들의 내용들과 관계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경야』는 조이스의 모든 전작과 관계한다고 주장하며(178), 두 텍스트 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율리시스』와 『경야』라는 거대한 산에 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키르케』라는 리츠(A. Walton Litz)의 흥미로운 주장(7)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V. 결론

만약 피로스가 아고스에서 노파의 손에 의해 낙상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올리우스 케사르가 칼에 찔려 죽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쉽사리 떨쳐 버려질 것들이 아니다. 시간이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족쇄를 채워, 그들은 자신들이 내쫓은 무한한 가능성들의 방 속에 가둬진 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고도, 그것들이 가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일어났던 일들만이 가능했던 것일까? 바람을 찌는 자여, 짜라. (U 2.48-53)

「네스토」(Nestor)장에서 스티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대목은 조이스 문학이 지향하는 바를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무한한 현실의 가능성 중 어느 한 가지에 고착될 수밖에 없는 역사와 달리 문학은—특히 조이스 문학은—다양한 역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대안적 형태로 다양한 버전의 역사를 짜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다시 쓰기, 문학을 통한 저항, 언어를 통한 저항이야말로 조이스 문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이스 문학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비평적 도구가 바로 “다시 쓰기 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이스 문학에 있어서 이전 작품들을 다시 쓰기를 통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텍스트는 바로 『율리시스』의 열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키르케」장과 『피네간의 경야』라 할 수 있다.

바르트(Roland Barthes)는 문학 텍스트를 독자적(readerly) 텍스트와 작가적(writerly) 텍스트 두 종류로 구분한다. 독자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며 풍부한 해석을 자아내는 조이스의 텍스트는 단연코 작가적 텍스트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카이버드(Declan Kiberd) 역시 “『율리시스』는 단순히 읽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술 되는 책으로서 제공된다 (473)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커쉬너는 최근 저서에서 『율리시스』가 “독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 되받아쓰게 만든다(63)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가적 텍스트로서 조이스 문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평도구가 바로 “다시 쓰기 이다. 물론 문학 기법으로서 “다시 쓰기는 꽤 전복적인 차원을 갖는다. 하나의 실재(reality)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다시 쓴다는 것은 역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일종의 텍스트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쓰기를 통하여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다양한 해석과 대안적 역사 버전으로서 문

학 작품이 갖는 의미는 극대화될 수 있다.

조이스는 절친한 친구 버전(Frank Budgen)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율리시스(블룸)에 관한 포인트 하나. 그는 이타카에 대해 낭만을 꿈꾸지만 (Oi want teh gow beck teh the Mawl Enn Rowd, s’elp me!) 그가 돌아갔을 때 이타카는 오히려 그를 화나게 한다. . . . 이상적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상적인 지역이 어디인지를 열심히 일하는 가여운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답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게: (5/P.O.를 포함하여) 친애하는 당신의 제임스 조이스로부터 (*Letters I*, 152). 이 편지는 블룸/오디세이의 항로 혹은 『율리시스』에 대한 해석이 원을 그리며 결코 종결되지 않음을 뜻한다. 물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다시 쓰기 역시 끝이 정해지지 않은 지속적인 반복임도 암시한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편지의 형식 자체가 원을 그리며 무한의 반복을 암시한다는 사실이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to는 “sincerely yours James Joyce 라는 표현과 더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의례히 들어가는 “from 의 자리이다. 그런데 결국 “이상향을 발견하게 되거든 자신에게 답신을 보내라 는 내용이므로 내용상은 “to 가 맞다. 결국 위의 편지에서 조이스는 편지의 송신인이자 미래 답장의 수신인이 되며 무한한 원을 그리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조이스에게 있어서 글쓰기라는 행위 역시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다. 조이스에 관한 한 독자는 다시 작가가 되어 작품의 빈 곳을 메워야 하고, 조이스 자신 역시 자신의 작품의 독자가 되어 끊임없이 다시 읽으며 다시 썼음에 분명하다. 결국 이전 작품들의 중요한 장면들을 다층적 시점을 통하여 다시 쓰는 행위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부수고 새로 만들기를 시도함으로써 중심으로 고착하지 않으려는 조이스의 작가적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가적 노력에 가까이가기 위해서 독자들은 그의 텍스트를 끊임없이 “다시 읽어야 할 것이다.

(안양대)

인용문헌

- 조규형. 「다시 쓰기의 이념과 성과: 편집과 전복 사이」. 『비평과 이론』 5 (2000): 145-68.
- Attridge, Derek, and Marjorie Howes, eds. *Semicolonial Joyce*.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Bakhtin, M. M. *The Dialogic Imagination*.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 of Texas P, 1981.
- Booker, M. Keith. *Joyce, Bakhtin, and the Literary Tradition: Toward a Comparative Cultural Poetics*. Ann Arbor: U of Michigan P, 1995.
- Brown, Richard. “‘Everything’ in ‘Circe.’” *Reading Joyce’s “Circe.”* Ed. Andrew Gibson. 222-40.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Duffy, Enda. *The Subaltern Ulysses*. Minnesota: U of Minnesota P, 1994.
- Eliot, T. S. “Ulysses, Order and Myth.” *Selected Prose of T. S. Eliot*. Ed. Frank Kermode. New York: Harcourt, 1975. 175-80.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New York: Cambridge UP, 1993.
- Gibson, Andrew. *Joyce’s Revenge: History, Politics, and Aesthetics in Ulysses*. New York: Oxford UP, 2002.
- _____, ed. *Reading Joyce’s “Circe.”* Atlanta: Rodopi, 1994.
- Gilbert, Stuart. *James Joyce’s Ulysses: A Study*. New York: Vintage Books, 1955.
- Goldman, Arnold. *The Joyce Paradox: Form and Freedom in His Fic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 Groden, Michael. *Ulysses in Progress*. Princeton: Princeton UP, 1977.
- Hampson, R. G. “‘Toft’s Cumbersome Whirligig’: Hallucinations, Theatricality and Mnemotechnic in V.A.19 and the First Edition Text of ‘Circe.’” *Reading Joyce’s “Circe.”* Ed. Andrew Gibson. 143-78.
- Hart, Clive. *James Joyce’s Ulysses*. Adelaide: Sydney UP, 1968.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Robert Scholes and A.

- Walton Litz. New York: Viking, 1969.
- _____. *Finnegans Wake*. New York: Viking, 1939. Abbreviated as *FW*.
- _____. *The Letters of James Joyce I*. Eds. Stuart Gilbert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Press, 1957.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Viking, 1968.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et al. New York: Vintage, 1986. Abbreviated as *U*.
- Kelly, Dermot. *Narrative Strategies in Joyce's Ulysses*. Ann Arbor: UMI Research Press, 1988.
- Kershner, R. Brandon. *The Culture of Joyce's Ulyss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 Kenner, Hugh. "Circe."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s.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4. 341-62.
-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Cambridge: Harvard UP, 1995.
- Kumar, Udaya. *The Joycean Labyrinth: Repetition, Time and Tradition in Ulysses*. New York: Clarendon P, 1991.
- Lawrence, Karen. *The Odyssey of Style in Ulysses*. Princeton: Princeton UP, 1981.
- Litz, A. Walton. *The Art of James Joyce: Method and Design in Ulysses and Finnegans Wake*. New York: Oxford UP, 1961.
- Lloyd, David. *Anomalous States: Irish Writing and the Postcolonial Moment*. Durham: Duke UP, 1993.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1980.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New York: Routledge, 1995.
- Norris, Margot. *Virgin and Veteran Readings of Ulyss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 Rickard, John S. *Joyce's Book of Memory: The Mnemotechnic of Ulysses*. Durham: Duke UP, 1999.
- Rushdie, Salman. "The Empire Writes Back with a Vengeance." *London Times* 3 July 1982: 8.

- Senn, Fritz. "'Circe' as Harking Back in Propective Arrangement. *Reading Joyce's "Circe."* Ed. Andrew Gibson. 63-92.
- _____. "Remodeling Homer. *Light Rays: James Joyce and Modernism.* Ed. Heyward Ehrlich. New York: New Horizon, 1984. 70-92.
- Vico, Giambattista. *The New Science of Giambattista Vico.* Ithaca: Cornell UP, 1968.
- Ziarek, Ewa Plonowska. "'Circe': Joyce's *Argumentum ad Feminam.* *New Casebooks: Ulysses.* Ed. Rainer Emig.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141-63.

Abstract*Ulyssean and Wakean* “Circe : Rewriting and Prewriting in Joyce

Kyoungsook Kim

This essay re-reads “Circe, the fifteenth episode of *Ulysses*, as a rewriting of *Ulysses* and a prewriting of *Finnegans Wake*. Many characters, words, actions, and even streams of consciousness that appear in former episodes reappear in “Circe ; however, not with mere repetitions, but with distortions and parodies. Joyce’s rewriting of *Ulysses* in “Circe reflects his alternative historiography, which refuses to be fixed in any official version. At the same time, “Circe can be read as a pretext of *Wake*. On the stylistic level, both “Circe and *Wake* demonstrate Joyce’s obsession of puns and language experimentation; on the thematic level, both texts are deeply rooted in the main characters’ obsessive guilt and shame. By reading “Circe as an in-between text or work in progress, one can produce a new interpretation of *Ulysses* and open a new venue to access *Wake*. Ultimately, this essay aims at analyzing how Joyce rewrites Irish history alternatively through his rewritings of his own texts.

■ Key words : Joyce, *Ulysses*, “Circe,” *Finnegans Wake*, rewriting, postcolonialism
(조이스, 『율리시스』, 「키르케」, 『피네간의 경야』, 다시 쓰기, 탈식민주의)

논문접수: 2016년 5월 2일

논문심사: 2016년 6월 7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4일